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이제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일어설 때** 성경: **마태복음 2장 1-12절**

(Tag:대한민국,성탄절,동방박사,신라시대,신약성경,마태복음)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7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2:1-12)

오늘은 대강절 첫째주일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린다. 기대하며, 고대하면서 지내자.

오신 메시아를 기념하는 성탄절,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탄절, 우리 모두에게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진정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평화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기간이 되고, 선행을 베푸는 기간이 되도록 하자.

우리 민족은 소망이 많은 민족이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생명싸개에 싸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민족이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민족주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민족의 우월주의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말하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타 민족에 비해서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독창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선교적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각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

이미 우리는 다민족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수많은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몰려들고 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대비하지 아니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되고 만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독특하며 독창적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강력하며, 정신문화적으로 매우 우수하다. 이것은 앞으로 세계 여러 민족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질들이다. 이스라엘은 자금을 만들어 놓았고, 미국 사람들은 기술을 발전시켜 놓았다. 이제 한국이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삼고 놀라운 영적 정신적 성장을 일구어내야 할 때가 되었다.

물론 현재의 대한민국은 좌충우돌, 일촉즉발, 위기직전에 몰려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6.25는 우리나라의 최대의 비극이었지만, 그 혼란을 틈타 북한의 우수한 인력들이 대거 남한에 유입되었다. 지금도 눈이 번득이는 탈북민들이 남한에 유입되

면서 새로운 긴장감과 도전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성경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청구해야 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새롭고 재미있는 해석이 등장하였다.
아리랑교회 유석근목사의 해석 소개.

동방박사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니라, 신라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당시에 신라는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 잘 발달하였고, 후에는 첨성대까지 지어 별들을 연구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박혁거세편에 보면 ‘54년 봄 2월에 패성이 하고에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패성(혜성?)이 견우성 자리에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박혁거세 54년은 B.C.4년으로 예수님의 탄생년도와 동일하다. 이때 박사들이 약 2년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였다면, 이들이 신라시대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의 부인은 인도 중부 ‘아유타’국의 공주 하황옥이라고 했는데, 그 아유타국은 유대인 공동체였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아’는 하(정관사) 유타는 유다란 말이다. 이는 바벨론 포로 이후 흩어진 남유다 유민이 세운 나라였다는 것이다. 이때 메시아의 별에 대한 사상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지 않을까 추측하기도 한다.

유석근 목사는 당시 예수님은 탄생하신 지 2년이 지났고, 이미 나사렛에 와서 살고 있는데 박사들이 2년 전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보고를 헤롯왕에게 해서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세 이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학살한 사건이 발생한다.

누가복음에서는 목동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을 뵈었다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집에서 마리아와 있을 때 만나 경배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브레스포(갓난 아기)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파이디온(어린아이)로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많은 위기를 벗어나서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셨다.

하나님은 항상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에 개입하셨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커다란 진보를 이룩한다.

<찬양예배>

제목 : 현실적 종말론 성경:마태복음 24장 23-28절
(Tag:종말론)

23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8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마24:23-28)